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적게 뛰고 많이 넣고… 남미축구의 힘

개인기·탄탄한 조직력 융화 90분 효과적 운용

브라질·아르헨·우루과이·파라과이 등 8강 절반

'많이 뛴다고 골을 더 넣는 것은 아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남미 축구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8강 진출국 가운데 무려 절반(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이 남미팀으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결승전에서 1950년 우루과이 대회 이후 60년 만에 남미팀끼리 만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조별리그와 16강에서 보여준 남미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뛰면서 골을 많이 넣는 효율적 축구에 정답이 있다. 뛰어난 개인기에 탄탄한 조직력이 융화되면서 90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0골로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린 아르헨티나는 16강전을 치른 팀 가운데 가장 적은 거리를 뛴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4경기를 치르면서 393.44㎞를 주파했다. 가장 먼 거리를 달린 미국(473.48㎞)보다 80.04㎞나 모자라지만 미국(5골)보다 두 배의 득점력을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4경기 동안 75차례의 슛을 시도해 36개의 유효슛을 기록하면서 10골을 골그물에 꽂았다. 적게 뛰면서도 많은 골 기회를 만들었고, 그 와중에 10골이나 터트리는 효과적인 득점을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공격의 중심을 맡아 최전방의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4골)과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2골)가 골을 해결하는 절정의 조직력이 최고의 힘이다.

통산 6회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도 4경기(조별리그 3경기, 16강 1경기) 동안 8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2골을 기록해 아르헨티나에 못지않은 효율성을 보여줬다.

브라질은 4경기 동안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총 403.85㎞를 뛰면서 74차례의 슛을 시도해 이 중 27개의 유효슛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보다 슛의 정확도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상대적으로 손쉬운 조별리그를 치렀던 아르헨티나와 달리 '죽음의 G조'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포르투갈 등과 만났던 것을 따지면 아르헨티나에 못지않은 성적임이 틀림없다.

남미팀들이 선수들의 개인기에 바탕을 둔 효율적 축구에 중점을 뒀다면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뛰면서 부지런히 골을 노렸다.

독일은 8강팀 가운데 가장 많은 432.31㎞를 달리면서 스페인(420.61㎞)과 네덜란드(411.54㎞)를 앞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9골을 터트려 '많이 뛰고 많이 넣는' 부지런한 축구를 보여줬고, 네덜란드(7골)와 스페인(5골)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은 4경기를 치르면서 총 2천803번의 패스를 시도해 2천265번을 성공해 8강팀 가운데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줘 가장 짜임새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한국 축구를 원정 16강에 올려놓은 허정무 감독이 2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강 이끌고… 아름다운 퇴장

'허무 축구' 비난 극복 2년 6개월 대표팀 맡아

자율·소통 중시 토종 감독…첫 원정 16강 견인

2007년 12월7일, 마침내 한국인 지도자가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되찾았다. 올림픽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함께 이끌었던 허정무(55) 감독이 2000년 레바논에서 열린 아시안컵을 끝으로 그해 11월 사령탑에서 물러나고 나서 약 7년 만이었다.

2000년 허 감독이 퇴임하고 나서 대한축구협회는 이듬해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 그 이후로도 대표팀 사령탑은 줄곧 외국인 지도자의 몫이었다. 움베르투 코엘류(포르투갈), 요하네스 본프레레, 딕 아드보카트, 핌 베어벡(이상 네덜란드) 등이 차례로 대표팀을 이끌었다.

지난해 2월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 이란과 최종예선 4차전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기고 나서, 4월 북한(1-0 승)을 넘었고 마침내 6월7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두 경기를 남겨놓고 일찌감치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B조에 속했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달 12일 포트엘리자베스에서 그리스와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2-0 완승을 이끌었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서곡이었다. 허 감독은 한국인 사령탑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경험했다.

같은달 17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치른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는 1-4로 대패했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엿새 뒤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 나서 2-2로 비기며 1승1무1패, B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이후 56년 만에 처음 이룬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었다. 비록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1-2로 아쉽게 패해 더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허정무 감독은 한국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그리고 그는 최장수 대표팀 사령탑 기록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2일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지도자들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허 감독의 퇴임 인사는 "국내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 만큼 좋은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16강 주역 기성용 광양시청 '깜짝 방문'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원정 첫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한 기성용 선수가 부모가 거주하는 광양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광양시청을 깜짝 방문해 환영 받았다.

2일 오전 유년기를 광양에서 보낸 기성용 선수가 아버지 기영옥(광양제철고 교사)씨와 함께 광양시를 방문해 이성웅 시장을 면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기영옥씨는 아들의 체력관리에 대해 "백운산의 기를 받은 옥룡 연습구장에서 훈련시켰으며, 평소 매실과 홍삼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용 선수는 광양시청 1층 로비에 모인 시청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인해주고 기념촬영에 응해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셀틱FC에서 활약중인 기성용 선수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결정적인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며 한국을 사상 첫 원정 16강으로 이끈 주역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인민루니' 정대세 獨 진출

분데스리가 보훔 입단 합의

북한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정대세(가와사키)가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Vfl 보훔과 입단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호치는 2일 "정대세가 다음 시즌부터 2부리그로 강등된 보훔으로 옮긴다"며 "보훔과 가와사키 구단 간에 합의에 따라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훔은 지난달 정대세의 이적을 요청했고, 가와사키는 정대세와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유럽 무대에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해 이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날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정대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큰 무대에서 아직 실력이 모자라는 것을 느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월드컵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테우스, 카메룬 감독 유력

독일의 축구 영웅 로타어 마테우스(49)가 카메룬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dpa통신 등은 마테우스가 독일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카메룬 감독 내정설에 대해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독일 스포츠 전문잡지 키커는 마테우스가 폴 르겡(프랑스) 감독의 뒤를 이어 카메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것이며 카메룬 축구연맹 회장과 통화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테우스는 "아직 정식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징조가 매우 좋다. 월드컵이 끝나면 카메룬 측과 만나 세부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밤의 월드컵

독 일 vs 아르헨티나 〈3일 23:00〉

스 페 인 vs 파라과이 〈4일 03:30〉

최나연(SK텔레콤)이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1라운드 7번홀에서 드라이버샷 후 볼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나연 시즌 첫 승 보인다

LPGA 제이미 파 클래식

1R 단독선두…신지애 6위

최나연(23·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1라운드에서 단독 1위에 나섰다.

최나연은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에 보기는 1개로 막아 7언더파 64타를 쳤다.

2위 앨레나 샤프(캐나다)에 1타 앞선 최나연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열린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이후 개인 통산 3승째를 노리게 됐다.

재미교포 김초롱(26)이 5언더파 66타로 마리사 바에나(콜롬비아), 카린 이셰르(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세계 랭킹 3위로 밀린 신지애(22·미래에셋)는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선두 최나연에 3타 뒤진 신지애는 박인비(22·SK텔레콤), 우에다 모모코(일본) 등과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은정(22)은 버디와 보기 1개씩 맞바꾸며 이븐파 71타를 쳐 공동 59위에 머물렀다. 허미정(21·코오롱), 민나온(22), 양희영(21·삼성전자), 강수연(34·하이트) 등은 3언더파 68타로 공동 12위다. /연합뉴스

우즈 "안 풀리네…" AT&T 내셔널 1R 공동 81위 그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주만에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우승자 우즈는 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민크 골프장(파70·7천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를 낚는데 그쳤고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를 쏟아내며 3오버파 73타를 적어냈다.

아준 아트왈(인도), 조 오길비(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닉 와트니(미국) 등 4명이 4언더파 66타를 치며 공동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우즈는 공동 81위에 머물렀다.

한편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1언더파 69타로 공동 19위에 올랐지만 양용은(38)은 버디 2개에 더블보기 2개, 보기 3개를 쏟아내며 5오버파 75타를 쳐 공동 103위로 떨어졌다. 안병훈(19)도 8오버파 78타를 쳐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박석남(우진사료공업 회장·전 유은총동문회장)·이진숙씨 장남 준영군 나성화·김경미씨 장녀 한아양=9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부음

▲박경주씨 별세 형남(전 목포해양대 사무국장)·형선(서강정보대 교수)·형도(전남대)·형신·형미(전남대병원 팀장)·형보(함평초교 교사)씨 부친상 임영식(동성중 교사)·정형순(광주은행 부행장)씨 빙부상 정순남(용주초교 교감)·김선례(문화중 교사)·한경화(전남대)씨 시부상=발인 4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서덕림씨 별세 한근수·철수·명심·명자·명화씨 모친상=발인 3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박규님님(여 : 84세)
子/子婦 이삼례 / 한순례
이삼진, 이삼주, 이삼민, 이삼남
女/壻 이수자 / 정진철
이수기 / 김기주
호 실 호실 201호
발 인 07월03일
장 지 영암 미암면 선영
故 채연희님 (여/70세)
子/子婦 김도영 / 이성의
김호영 / 임혜련
女/壻 김미숙 / 송혜주
호 실 특실301호
발 인 07월 04일
장 지 서구 서창동 선영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